

만남

2021년 5월
통권 196호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빕니다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주임신부 : 박 철 현 미카엘

신부님 칼럼	+ 이웃사촌-----	3
소공동체 모임 자료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4
교리	교리 톡톡-----	7
보물 창고	기도의 목적-----	10
영적 상담	-----	12
슬기로운 신앙	불을 지르러 왔다-----	14
영적 오아시스	하느님을 알아가는 기쁨-----	16
축일과 전례	-----	17
헌납금 납부자 명단	-----	18
함께 나눠요	-----	19
공동체 소식	-----	20
활동단체 모임 안내	-----	21
이 달의 전례 및 행사	-----	22
함부르크 한인천주교회, 월보 만남지 안내	-----	23
미사안내	-----	24

《교황님의 5월 기도지향》

❖ 보편 지향 : 금융제

금융 질서를 정립하여 시민들을 위험에서 보호할 수 있게 금융 책임자들이 정부와 협력하도록 기도합시다.



이웃사촌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웃 사람끼리 서로 돕고 의좋게 지내는 모습이 멀리 있는 사촌보다 더 가까운 사이로 친하게 지낸다는 의미입니다. 살아가면서 이웃을 잘 만나는 것은 큰 복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잘 만나 복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만, 이웃에게 복이 되어주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누가 나의 이웃이 되어주길 바라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의 이웃이 되어 복을 지어 줄 수 있는 마음이 커지기를 희망합니다.

남자 몇이 중풍에 걸린 어떤 사람을 평상에 누인 채 들고 와서, 예수님 앞으로 들여다 놓으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 천정을 벗겨내고 환자를 예수님 앞 한가운데로 내려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사람아 너는 죄를 용서 받았다.”(루카 5,20)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육체적인 병을 낫게 해 달라고 간청했지만, 예수님께서서는 병과 허약함 뿐 아니라 그 속을 고쳐 주셨습니다. 인간은 겉모양을 보고 판단했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영혼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의 뿌리를 다스리시고 부족함을 충만하게 채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능력의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명의는 원인을 치료하십니다. 사실 주님께서서는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말씀을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중풍 병자는 균중이라는 장벽과 지붕이라는 걸림돌을 넘어 예수님의 능력을 만났습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넘어야 할 산을 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시대에 병자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하느님의 저주를 받아 그리된 것이라 여겼으니 ‘죄를 용서받았다.’는 선언은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이웃을 잘 만났습니다. 그는 이웃이 있었기에 능력의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고 모두를 얻었습니다. 그야말로 잘 만난 이웃사촌이 복덩이입니다. 중풍 병자의 믿음도 믿음이지만 이웃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해 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수고와 땀이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웃의 믿음을 보고도 은총을 허락하시니 좋은 이웃을 만나는 것도,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것도 다 복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큰 복을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큰 믿음에 바탕을 둔 행동에 신기한 일은 여전히 일어날 것이고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만의 구원이 아니라 이웃의 구원을 위해 애쓰는 오늘이기를 기도합니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요한 15,9-17)

▶ 지난달에 정한 성구에 대한 생활 나눔을 잠시 하겠습니다.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35장 “나는 포도나무요” 1절과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 ❖ 사랑이신 주님! 저희가 당신의 계명을 지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 ❖ 주님, 당신 안에 머무르면서 기쁨 안에 살아가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한 분이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15 9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 10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 11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 12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 13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 14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 15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좋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 15 15 너희에게 모두 알려 주었기 때문이다.
 16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17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성경 구절이나 단어를 3번씩 기도하듯이 외쳐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특별히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없을 때는 아래의 질문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한 적이 있으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톨스토이는 “사람이 음식을 먹지 못하면 몸이 괴로운 것처럼 영혼도 사랑을 받지 못하면 고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은 건강합니다.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올바른 사랑을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받을 줄도 알고 줄줄도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요한 15,9)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사랑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께서서 사랑하는 아들이고,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그냥 알게 하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의 사랑을 모르고 세상과 더불어 죄를 먹고 마시며 살던 우리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예수님을 사랑하셨고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느님한테서 사랑이 흘러나와 예수님을 거쳐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 사랑은 다시 우리를 거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거쳐 받았습니다. 거쳐 받았기에 거쳐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과 나와 예수님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이며, 이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 또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15,12)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15,10 참조) 사랑인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려면 나 역시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나의 사랑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기타토의

진행자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 (실천사항 논의 후)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35장 “나는 포도나무요” 3절과 4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7. 성령의 은총과 열매

성령의 7가지 은총		성령의 9가지 열매		
지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느님이 함께 하심을 아는 것 •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깨닫는 것 	사랑	하느님과 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 •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는 것
통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앙의 진리에 대한 통찰 • 나 자신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통찰(존재의 의미 고찰) 	기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느님과 관계 안에서 오는 기쁨 (사랑받는 존재) •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식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느님을 내 삶의 조언자로 모시는 것 • 삶의 모든 순간에 하느님의 현존을 의식하는 것 	평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느님 안에 뿌리내림으로써 우러나는 만족감 • 하느님께 온전히 의탁함
용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느님께 다가감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을 극복하는 힘 •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는 의지를 견고하게 해주는 은총 	인내	이웃과 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먼저,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느님을 향한 믿음 • 약점과 다름을 인정하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음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조물을 향한 하느님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 • 하느님만이 우리의 행복에 대한 갈망을 채워주시는 분임을 깨닫는 것 	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개심으로부터의 자유로움 • 용서와 화해의 바탕 • 한계를 지닌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
공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느님을 자녀로서 경외하는 마음 • 타인을 형제자매로 대하며 그들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 	선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의 선성(善性)을 확인하는 것 • 창조물의 선성(善性)을 보존하려는 노력
경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숙한 신앙생활의 모범을 보이며 신앙을 증거하도록 이끌어주는 은총 • 하느님을 향한 존경의 의미로서의 두려움(양심에 충실함) 	성실	나 자신과 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절함의 역동적인 표현 • 하느님께 자신과 자신의 모든 활동을 봉헌하는 것
		온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느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 대범하고 너그럽게 대함 • 하느님 안에서의 쉼
		절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느님 사랑이 빚어낸 결과 • 욕망을 다스리며 이겨내는 것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며 바른길로 인도하시는 하느님이십니다. 이러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시는 은총은 주체적으로 신앙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성숙한 신앙인에게 주어지는 하느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성령이 빚어주시는 9가지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처럼 성령의 은총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향한 믿음과 그에 따른 내 삶의 투신이 있을 때 자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8. 삼위일체 신비에 대한 신앙고백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오로지 한 분 하느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본 모습 안에서 또 인간의 역사 안에 드러난 계시를 통하여 우리는 성부로, 성자로, 성령으로 당신을 드러내신 하느님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생명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교회와 모든 믿는 이들 안에 활동하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세 분의 하느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 위격(位格)으로 당신을 드러내신 하느님께서는 한 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삼위일체의 신비’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으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신앙의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드러난 하느님께서는 같은 신성(神性)을 지니신 하느님이십니다. 하지만 단순히 모습만을 바꾼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세 ‘위’(位)로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삼위’(三位)로 드러나신 하느님께서는 ‘일체’(一體)를 이루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한 분 하느님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언제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리며(대영광송),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합니다. 이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한 분 하느님에 대한 믿음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근간이며 핵심입니다.

최근 들어 유사종교에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왜곡하여 신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역사를 세 단계로 구분 지으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요한 묵시록에 계시된 내용이 이루어지는 때라고 신자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성부께서 활동하신 시대로, 신약을 성자의 시대로, 그리고 교회를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시대로 구분하며 마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분처럼 이해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신 하느님께서는 세상 시작부터 세상 끝날까지 세 위격이 시되 언제나 항상 한 분으로서 함께 활동하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구원의 역사 안에서 이뤄진 하느님의 모든 업적은 언제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함께 이루신 일들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각기 다른 모습으로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지만,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한 분이시며 일치를 이루며 활동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9. 올바른 영성체의 방법

세례성사를 통하여 하느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내어주시는 영적인 양식, 곧 그분의 몸과 피를 받아먹는 성체성사를 통하여 하느님과 완전한 사랑의 일치를 이루며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힘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성체를 합당하게 받아 모시기 위해 우리는 내적으로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에 올바르게 성체를 받아 모시기 위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복재(空腹齋) :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이 순간 그분께 합당한 존경과 정성, 그리고 기쁨을 나타내고자 성체를 받아 모시기 1시간 전부터 물과 약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을 뜻하며, 공심재(空心齋)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고령자, 환자 그리고 환자를 간호하는 사람은 예외입니다.

행렬 : 영성체를 하기 위해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지존하신 주님께 겸손을 드러내는 표시로 두 손을 모으고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걸어 나가야 합니다.

영성체 : 성체를 영할 때, 먼저 성체 앞에 깊은 절을 합니다. 이때 자신의 앞사람이 성체를 모실 때 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차례가 되면 오른손으로 왼손을 받쳐 들고 성체가 모셔진 성합과의 거리에 유의하여 손을 내밉니다. 사제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체를 들어 보이면 “아멘”하고 응답합니다. 성체를 받아들이고 옆으로 몇 발 나와 오른손으로 성체를 집어 입에 모십니다. 성체를 영하고 난 후에는 사제나 감실, 제대에 절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영성체는 혀 혹은 손으로 자유로이 할 수 있지만 한국 천주교회에서는 성체에 올바른 공경과 여러 가지 사목적인 이유로 대부분 손으로 성체를 받아 모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 예를 들어 아기를 안고 있다거나 손을 다쳤을 경우 입으로 영성체를 할 수 있습니다. 영성체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오면 침묵 중에 그리스도와 일치의 시간을 갖습니다.

모령성체(冒領聖體) : 스스로 대죄(중죄) 중에 있음을 알면서도, 영성체를 하여 성체를 모독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체를 영하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은 하느님의 자녀로서 은총의 상태에 머물러야 하기에 고해성사를 통해 온전하고 깨끗한 모습을 갖추어야 합니다.

영성체 횡수 : 오랜 시간 동안 영성체는 하루 한 번으로 제한했었지만, 1983년 새 교회법은 같은 날 두 번 영성체를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기도의 목적(전삼용 요셉 신부님)

기도는 많이 할수록 더 거룩한 사람이 될까요? 예수님께서서는 위선적인 기도를 질타하십니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과부들의 가산을 등쳐먹으면서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는 길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엄한 단죄를 받을 것이다.”(마태 23,14)

이 말씀대로라면 기도를 길게 하는 것만이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엄한 단죄를 받는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과부는 당시 고아와 함께 가난한 사람들의 대명사로 쓰였는데 이렇게 가난한 이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는 긴 기도는 위선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랑의 열매를 위해 하는 것이기에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남에게 보이기 위한 위선적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행위를 목적을 가집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목적을 나무의 열매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목적은 무화과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으며 그분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수액을 받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사랑과 기쁨과 평화의 열매가 열려야합니다(갈라 5,22 참조). 그 열매가 기도하는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마르코 복음엔 예수님께서 성전에 기도하러 가시던 중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는 장면과 성전을 둘러엎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마르 11,12-19 참조). 이어 믿음에 대한 가르침과 용서에 대한 말씀도 이어집니다.(마르 11,20-26 참조)

열매 맺지 못하여 저주받은 무화과나무는 결국 ‘기도’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기도하는 집이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는 결국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열매 맺지 못하는 형식적인 예배와 기도만이 드러지고 있었던 성전을 저주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군대에 파괴되어 지금껏 다시 세워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사랑의 증가에 있어

우리도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비극을 맞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로 ‘믿음’의 열매가 맺어져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서 기도를 하지만 기도를 통해 그 믿음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성장하는 믿음의 내용이란 바로 자신이 하느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하느님의 자녀라는 믿음이 있어야 하느님

의 자녀처럼 사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하느님의 자녀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원수까지 용서할 수 있어야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수 있습니다(루카 6,35). 그래서 결국 기도로 맺어지게 되는 열매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덕목은 자비이고 그 자비심에서 우러나오는 ‘용서’의 마음입니다. 용서란 인간관계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비유말씀을 하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이 계명을 함께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5,12)

결국 기도의 목적은 사랑의 증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하느님과 의 친교와 이웃과의 친교가 굳건해집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서도 이웃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가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열매 맺지 못하는 헛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기도를 이기적인 마음으로 합니다. 자기 자신의 안위만을 위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무화과나무 비유가 하나 더 나옵니다. 주인이 포도밭에 무화과나무를 한 그루를 심어놓은 것입니다(루카 13,6-9 참조). 그런데 그 무화과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포도 재배인’은 일 년만 더 거름을 주고 기다려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포도밭에 왜 무화과나무를 한 그루만 심어놓았을까요? 그리고 왜 이 무화과나무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 ‘포도 밭’에 ‘포도 재배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 재배인은 포도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포도 재배인이 왜 무화과나무를 관리할까요? 그것도 포도나무 밭에서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왜 무화과나무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본래 포도밭에는 포도나무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만 특별하다고 여기는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 무화과나무입니다. 자아를 버리지 않으려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포도나무와 섞이지 못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지르고 나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신들의 몸을 가린 것은 이젠 친교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리며 서로 상대 탓하고 비난하게 되었습니다.

성모님은 어떨까요? 기도 끝에 성령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을 잉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늦은 나이에 아기를 가져 고생하고 있을 사촌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자신을 가장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간 것입니다. 이렇듯 기도는 이웃사랑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묵주기도를 몇 단 바쳤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겸손과 사랑이 증가하였는가 중요합니다. 사랑의 열매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기도해놓고 별 받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질문

얼마 전 친구가 점을 보러 가자고 해서 호기심에 따라갔는데, 점쟁이가 저에게 앞으로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라며 부적을 사라고 하더군요. 그러나 저는 천주교 신자라서 그런 거 필요 없다고 하고 돌아왔는데 왠지 찝찝하고 불안하고 그 부적을 샀어야 했는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믿음이 약해지는 것 같아서 죄스럽기도 하고요.

답변 - 홍성남 신부님(가톨릭 영성 심리 상담소 소장)

자매님의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사람의 마음은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지요. 특히 자기 앞날에 대한 호기심이 가장 강해서 예언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누구나 머리를 조아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약해서 다른 사람들이 던지듯이 하는 말도 새겨듣는지라, 내 앞날을 이러쿵저러쿵하는 자리에는 아예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이끌어주시겠지.’ 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점이나 예언에 대한 집착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때로는 그런 말들이 주는 방향으로 자신을 몰아가기 때문입니다.

특히 좋지 않은 말을 따라가는 성향이 강한 것이 사람입니다. 이것을 ‘노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플라시보 효과’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반면, 노시보 효과는 안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합니다. 노시보 효과 중에서 가장 악질적인 것이 저주입니다. ‘너를 저주할 것이다’라는 말을 들은 사람들은 공포감 때문에 시름시름 앓다가 병들거나 심지어 죽기까지 합니다.

노시보 효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아이들입니다. 영화 ‘미세스 다웃 파이어’로 유명한 배우 로빈 윌리엄스는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로 인한 우울증 때문에 평생을 고생하다가 결국 자살로 삶을 마감한 노시보 효과의 희생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 상담계의 생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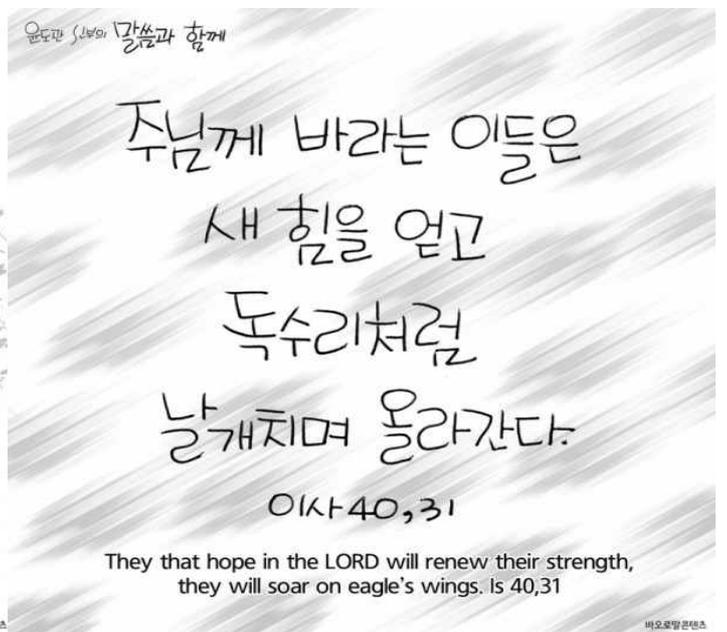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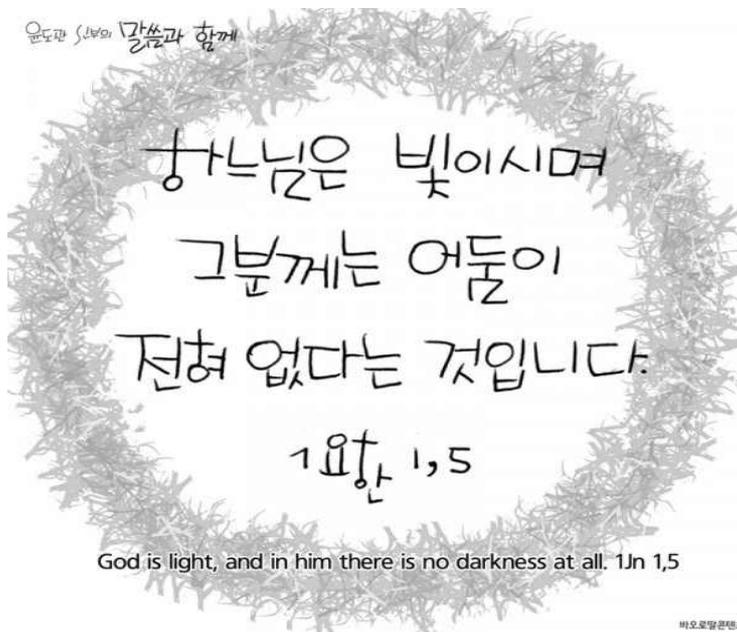
상담실을 찾아오는 수많은 내담자가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받은 심리적 상처로 인한 노시보 효과로 인해 평생을 우울증이나 불안증을 앓고 삽니다. 그런데 부모만큼이나 이런 심리적 효과, 플라시보나 노시보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곳은 종교계입니다.

종교인들은 사람의 삶을 좌우하는 심리적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가뜩이나 귀가 얇고 새가슴인 사람들의 마음을 신의 이름으로 흔들어 대기 때문입니다. 가

끔 종교인들이 신자들에게 구원론으로 협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지 못하면 지옥 벌을 면치 못한다는 식의 설교가 그렇습니다. 신자들은 주님이 사랑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은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주님이 죄인들을 처벌하실 것이란 말은 마음에 새겨두고 불안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폭력적인 부모를 찬양하면서 공포스러운 가정생활을 하는 아이들처럼 병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신자들의 그런 마음을 악용해 심리적인 주도권을 가지려고 의도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는 바람에 신자들이 범불안장애에 걸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기도하고 선행을 하면서도 '빅 아이'(Big Eye)에게 감시당하는 위축된 마음으로 노예 같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의 문제가 과거의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이라든가 혹은 가게에 문제가 생겨서 그렇다거나 그러니 기도를 더 해야 하고 헌금을 더 해야 한다는 식의 협박성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신자들은 노시보 효과가 발생해 그런 말을 한 사람의 추종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이미 사제의 자리가 아니라 사교집단 교주 자리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신자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협박용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종교인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하느님으로부터 엄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 이비 교주들은 자신을 신성화하고 범죄행위를 숨기기 위해 신자들이 자신들을 언급하는 것을 독성죄라고 매몰차게 몰아붙입니다. 일부 종교인들이 그런 유사한 언급을 하면서 노시보 효과를 바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쯤 되면 하느님의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지요.



★ 불을 지르러 왔다(이수철 프란치스코 신부님)

‘불을 지르러 왔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봅니다. 이 말씀에 대한 답을 바오로 사도의 ‘교회를 위한 기도’가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나 바오로 사도는 말 그대로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깊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수입니다. 사랑처럼 기도도 끝이 없어 우리는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영원한 초보자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소망이 가득 담긴 말씀입니다. 무슨 불입니까? 사랑의 불, 말씀의 불, 성령의 불입니다. 아니 예수님 자체가 하느님의 불입니다. 사랑의 불, 말씀의 불, 성령의 불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당신을 닮아 열정의 불로, 사랑의 불로, 성령의 불로 타오르기를 바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불을 통해 정화되는 우리의 삶입니다. 매일 미사를 통해 우리에게 당신 사랑의 불을 붙여주시니 우리 또한 당신 사랑의 불이 되어 살게 하십니다. 사랑의 불이 되어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으로 불붙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참평화도 이뤄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간절한 소망은 우리 또한 당신 사랑의 불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하는 세례가 있다. 이 일이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짓눌릴 것인가?”

예수님께서서는 수난, 곧 구세주로서 수행하셔야 할 사명의 완수를 생각하시며 초조해 하시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참으로 인간적인 모습이 완전합니다. 이런 와중에도 예수님께서서는 한결같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완성되어야 할 세례의 갈망을 표현합니다. 여기서 세례는 주님께서 겪게 될 처절한 고통과 죽음을 가리킵니다. 이 세례로 인해 우리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은 끝이 아니라 곧장 부활의 새생명과 연결됩니다. 참으로 우리가 극도의 고통 중에도 죽음과 부활의 파스카의 예수님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산다면 고통 중에도 우리는 깊은 참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예수님께서서는 가정의 분열을 구체적으로 예를 드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거짓 평화를, 값싼 평화를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참평화를 주시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빛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선이십니다. 예수님의 도래가 저절로 진상을 폭로하게 되는 분열은 필연입니다. 어둠과 빛, 진리와 거

짓, 악과 선으로의 분열입니다. 그러나 이런 분열은 파괴적 분열이 아니라 일치
의 참평화로 가기 위한 잠정적 과정상 창조적 분열입니다. 우리가 명심할 바 참
평화는 결코 단시간에 이뤄지는 값싼 평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동안 끊임없는 영적 수련의 긴 정화기간을 통한 인내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내적일치의 참 평화입니다. 하여 참평화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주님의 수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파스카 신비의 삶에 일치하여 자발적 기쁨으로 항구히 인
내하며 살아가는 길뿐임을 깨닫습니다. 단언하건데 값싼 은총은, 값싼 평화는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수난과 죽음과 부활의 파스카 신비에 결합될수록 참평화
요, 이는 평생과정임을 깨닫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영적 여정은 참평화에 이르
는 평화의 여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하여 파스카 신비의 삶에 항구하여
참평화의 열매를 얻기 위한 답은 기도뿐임을 절감합니다. 그러니 참 평화의 여
정과 기도의 여정은 함께 갑니다. 새삼 평생, 매일 정성껏 바치는 하느님 찬미
와 감사의 시편성무일도와 미사 공동전례 기도의 은총이 참 평화에 얼마나 결
정적 기여를 하는지 깨닫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은 하느님을 흠송하고 그
분의 자녀들을 사랑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또 시편은 우리가 하느님의 바로 그
눈으로 실재를 관상하도록 허용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내적인간이 당신 힘으로 굳세어 지게 하시
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안에 사시게 하시니,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에 날로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어 저절로 참 평화입니다.
하여 우리는 형제들과 함께 하느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
한지 깨닫는 능력을 지니고 인간의 지각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될 것이며 하느님의 온갖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사도는 에페소서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힘으
로, 우리가 청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풍성히 이루어 주실 수 있
는 분, 그분께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세세대대로 영원무궁토록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에페 3,20-21)



♣ 하느님을 알아가는 기쁨 - 성사(왕태언 요셉 신부님)

우리가 성사를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정의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느님 은총의 가시적 표현”이라고 하는 문장일 것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인간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자비를 드러내 보이시는데, 한없이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서는 그것을 인간이 알아챌 수 있는 방법으로 전달하신다는 것이 그 설명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더 깊이 생각해보면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은총을 내려주심에 있어서 그것을 인간이 알아챌 수 있는 방법으로 전하신다는 것은 한없는 자비이며, 복된 기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곁을 스쳐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짐으로써 하느님의 은총 속에 머무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충분히 느끼고 깨달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하느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나자렛 생활과 공생활 동안 그분의 말씀과 행위는 이미 구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파스카 신비가 지닌 능력을 미리 보여 주었으며,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교회에게 주어질 것을 예고하고 준비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가 드러내는 신비들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당신 교회의 봉사자들을 통하여 성사 안에서 나누어 주시는 것의 기초가 됩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1115항)

예수님께서서는 참 하느님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으며 또한 참 인간으로서 인간다움의 모든 일들을 온전히 겪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보여주신 말씀과 행적이야말로 오늘날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성사들의 표본이자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을 온전히 세상에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묵상하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사의 근원이신 원성사(元聖事, Original sacrament)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베푸는 성사들을 통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부활하신 바로 그 예수님께서 교회의 성사들을 통해 오늘도 우리와 함께 머물고 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상과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신 그 마음 그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머물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면, 교회의 성사들에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큰 감사와 사랑으로 가득찰 것입니다.

❖ 5월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3일	필립보	김경렬 이수웅	15일	소피	이공종
8일	데시데라토	방은일	16일	요한	홍경영
11일	비발도	김건	22일	율리안나 (율리아)	김효정 방수정
12일	젬마	김(이)정자 방(조)영자	25일	소피아	이신자
14일	크리스티안	이성원	30일	요안나	윤석순

❖ 5월 지방공동체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3일	야곱	정광하(H) 이태호(O)	14일	마리아 도미니카	이혜진(H)
6일	베네딕타	민병진(H)	15일	소피아	박영희(B)
8일	이다	최이다(H)	22일	리타	김남화(B)
12일	젬마	김선주(H)			

❖ 5월 성가번호 ❖

5월	입 당	봉 헌	성 체	파 견
2일	128	340	182	244
9일	135	217	178	245
16일	141	510	167	137(1,3절)
23일	147	512	151	142
30일	81	511	165	80



❖ 축일과 전례 ❖

5월	독서	제병봉헌	복사	커피봉사
2일	백정선(토마스 아퀴나스) 이영자(헬레나)	김치수(도미니코) 이영희(클라우디아)	남궁춘배(바르톨로메오) 최장용(레오)	X
9일	이정훈(요나스) 전우연(아네스)	허길조(안드레아) 허명자(가밀라)	주일학교	X
16일	청년회	청년회	청년회	X
23일	강신행(토마스) 이순자(마리아)	이영원(베드로) 이영희(클라우디아)	김진호(프란치스코) 최장용(레오)	X
30일	배성우(도미니코) 심은희(안나)	이철우(아우구스티노) 이영희(체칠리아)	주일학교	X



❖ 헌납금 납부자 명단 ❖

♥ 헌납금 납부자 명단입니다(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현금

강신행, 김경미, 최현봉, 영희 Eggerstedt

감사드립니다

* 계좌

권말숙 Rabe(안드레아), 김대현, 김선애, 김치수, 김진호, 김효정, 송문규, 신옥희, 최종금, 김유석, 김영희, 이경규, 이공종, 이명원, 이정훈, 이수웅, 이성원, 이석우, 오옥수 Ranitsch, 정정숙, 최현봉, 최아나벨, 허두욱, 허길조, 현영애,

♣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당의 살림살이를 위해 노력하신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3월 31일 자 통장 잔액은 32,500,59 유로입니다(배구대회 잔액 4,449,43 유로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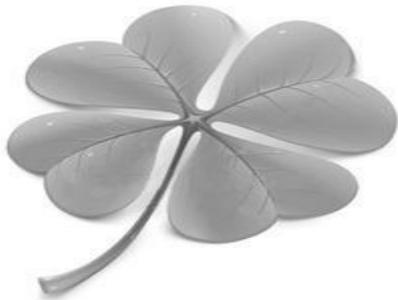
♥ 사랑과 평화로 하나 되게 하소서(최영숙 데레사)

하느님 아버지를 아빠라 부르며 믿고 감히 청하오니
저희 교회와 신부님과 신자들을 삼위일체로 강복하시고
희로애락으로 다함께 살아온 믿음의 50년을 축복하시어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사랑과 평화로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 사랑이 인생의 길이요 주님평화가 영생의 안식처라
나의 베풀이 곧 사랑이요 너와의 나눔이 곧 평화로구나
너의 가슴에 꽃을 피우면 나도 나비가 되어 날아가리라
사랑의 씨앗이 주님께 영광의 열매로 맺게 하여 주소서!

가슴이 뜨겁게 타오르는 목마름이 사랑을 찾아 헤매고
영혼의 고요함이 침묵으로 평화의 안식처를 그리워하며
주님을 향해 늘 마음은 달리지만 몸은 어둠을 헤매오니
미사를 통해 성체와 성혈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과거에 묻혀 우울하지 말고 미래에 대해 불안하지 말며
현재에 삶을 평안하게 갖고 최선을 다해 행복하게 살며
마음만 열면 사랑의 샘물이 솟고 평화의 깃발이 날리니
믿음으로 가슴에 사랑 심어 마음에 평화 누리게 하소서!

사람은 누구나 성장하고 누구나 다 조금씩 익어가면서
고운 사랑을 심고 곱게 가꾸어 주님께 정성껏 봉헌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서로가 평화를 나누고 빌어주며
십자가에 사랑의 꽃과 평화의 꽃을 피워드리게 하소서!



주님사랑의 손길로 만드신 우리모습 이대로 사용하시고
저희 가정과 가족들과 이웃들도 성가정으로 축복하시며
언제나 부족함과 공허함을 성령으로 가득히 채워주시어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사랑과 평화로 하나 되게 하소서!

❖ Hamburg 공동체 소식

1. 락다운이 5월 2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5월 2일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여전히 암울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5월에도 미사 후 커피 나눔은 없겠으며 신심단체 모임도 없겠습니다.
2. 5월은 성모님 성월입니다. 가능하면 자주 묵주기도를 봉헌하고 성모님의 전구를 청합시다. 아울러 성모님의 밤 행사는 올해 없겠습니다.
3. 5월 23일 일요일 성령 강림 대축일은 전통적으로 본당의 날 행사가 있었지만 올해는 행사가 없고 미사 봉헌만 있겠습니다. 참조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함부르크 대주교님께서는 각 미션 교회가 독일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함부르크 교구에서 주최하는 모든 신앙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청합니다.

❖ 지방공동체 소식

1. 5월 2일 일요일까지 함부르크는 락다운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1일 브레멘 공동체 미사는 없겠습니다. 오스나브뤼크와 하노버 공동체는 이후 락다운 연장 여부에 따라서 변경될 예정이니 홈페이지나 공지사항을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활동단체 모임 안내 ❖

사목 협의회	매일 첫째 주일미사 후	만남성당	회장	한말조(마리안나)	
			부회장	허명자(가밀라)	
			부회장	최영숙(데레사)	
			전례부장	문경영(아가다)	
			총무	이정훈(요나스)	
주일학교	매일 셋째 일요일	만남성당	교감	최영자(파울라)	
연령회	매일 넷째 목요일 17시 30분	만남성당	회장	정정숙(아나벨)	
예비자교리		만남성당	복음화	회장 대리	
레지오 마리아	믿음의 샘	매일 첫째 화요일 저녁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허명자(가밀라)
	자비의 모후 Pr.	매주 화요일 17시 30분	만남성당	단장	강순행(마르가리타)
	평화의 모후 Pr.	매주 수요일 오전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현영애(헬레나)
	사랑의 모후 Pr. (청년)	매주 목요일 저녁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박성아(베로니카)
구역	1구역	반장	최종금(로사)		
		총무	김매자(베로니카)		
	2구역	반장	이영희(체칠리아)		
		총무	정정숙(아나벨)		
	3구역	반장			
		총무			
	4구역	반장	육종인(베로니카)		
		총무	이순자(마리아)		
청년회	매일 둘째 주일미사 후	회장	김한솔나(리드비나)		
		부회장	황혜인(율리아)		
요셉, 마리아회	매일 둘째 수요일 오전미사 후	회장	조현영(로사리아)		
		총무	이정은(프란치스카)		
여성 봉사회		담당자	이정옥(크리스티나)		
			김매자(베로니카)		
			권지연(안드레아)		

5월(성모 성월) 중 행사 예정표

일	요일	전례일	단체 행사	비고
1	토	노동자 성 요셉, 근로자의 날		브레멘 공동체
2	일	부활 제5주일(생명 주일)		
3	월	성 필립보와 성 야고보 사도 축일		
4	화			
5	수	어린이 날, 입하		
6	목	한국 103위 순교 성인 시성일		
7	금			
8	토	아버이 날		오스나브뤼크 공동체
9	일	부활 제6주일		
10	월			
11	화	입양의 날		
12	수			
13	목			
14	금	성 마티아 사도 축일		
15	토	스승의 날		하노버 공동체
16	일	주님 승천 대축일(홍보 주일)		
17	월			
18	화			
19	수	부처님 오신 날		
20	목			
21	금	소만, 부부의 날		
22	토			
23	일	성령 강림 대축일	본당의 날 행사는 없습니다	
24	월	교회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		교육주간(30일까지)
25	화			
26	수	성 필립보 네리 사제 기념일		
27	목			
28	금			
29	토			
30	일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청소년 주일)		
31	월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방문 축일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

본당신부 박철현 미카엘
사목회장 한말조 마리아나(☎ : 0157 7021 0466)
주 소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Tel : 040 24 34 92
Fax : 040 24 87 44 38
홈페이지 <http://mannam.cathms.kr/>
E-mail : hmannam@gmail.com



Bankverbindung

Erzbistum Katholische Koreanische Gemeinde(Mission)
Hamburger Sparkasse
Konto Nummer Haspa
IBAN DE 84 20050550 1230 126 136
BIC HASPDEHHXXX

❖ 월보 만남 ❖

편집인 박 철 현 미카엘 gruess8823@gmail.com
 본당 신부님 H.P : 0176 4321 9708

*** 월보 만남지는 공동체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원고 내용은 함께 하고픈 기도, 화살기도, 묵상 글, 좋은 글, 살아가는 이야기 등입니다.
원고를 보내 주실 분은 매월 20일까지 편집인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은 A4용지
1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 미 사 안 내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본당 주일 미사 (고해성사는 미사 30분 전)

시간 : 매주 일요일 15:00

장소 : 예수 성심 성당(Herz-Jesu-Kirche)

Bei der Hammer Kirche 12, 20535 Hamburg

평일 미사

시간 : 매주 화, 목요일 19시, 수요일 오전 10시

둘째 금요일 17시 30분(2구역 소공동체)

장소 : 만남성당,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지방 공동체

Bremen

시 간 :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St Hedwig

Kurt-Schumacher Allee 62, 28327 Bremen

연 락 처 : 김영숙(아나스타시아), Tel : 04202 71888

H.P : 0172 9593611

Osnabrück

시 간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Dom-Gemeindehaus(Pernikel Mühle)

Mühlenstraße 6, 49074 Osnabrück

회 장 : 노금순(데레사), Tel : 0541 5062637

Hannover

시 간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6시

미사장소 : Kirchröder Straße 12a, 30625 Hannover

연 락 처 : 김명수(마태오), H.P : 0151 29103699

